

System Fidelity CD-250

저 멀리서 떠오르는 산뜻한 음악 풍경

수입원 : 태인기기 (02)971-8241

· 가격 : 55만원 · 출력 전압 : 0.7V(±2dB) · 채널 밸런스 : 2dB 이하 · 분리도 : 60dB 이상
· 하모닉 디스토션 : 0.05% 이하 · S/N비 : 99dB 이상 · 크기(WHD) : 43×7.5×29cm · 무게 : 4.3kg

일시와 장소까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필자는 보급형 기기를 절대로 알아보지 말라는 조언을 애호가들에게 해 준다. 그리고 이런 조언을 해 줄 때면, 디자인은 화려하지만 내용은 부실한 중급 기종을 선택하느니, 음향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보급 기종을 선택하는 것이 음악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배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설명을 잊지 않고 덧붙인다. 어설피게 개성만 추구하다가 음악의 특정 국면만 강조하고, 시스템 구성에서도 입맛을 맞추기 까다로운 중급 기종보다는, 개성이 그만 못하고 음향의 완성도도 그보다 떨어질지 모르지만, 음악의 보편성을 자연스러운 음향으로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춘 보급 기종에서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스템 피델리티의 CD 플레이어 CD-250은 전형적인 보급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겉치장에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평범한 새시와 패널 디자인을 보아도 그렇고, 가격으로 보아도 그렇다. 그리고 이 회사의 홈페이지(www.systemfidelity.com)를 구석구석 뒤져 보아도, S/N비 · 채널 분리도 · 무게 · 크기 등과 같은 기본 제원 외에는, 이 플레이어가 채용하고 있는 기술 내용을 제대로 소개해 놓지 않는 불친절함을 놓고 보아도 그렇다. 따라서 CD-250은 일체형 뮤직 시스템에서 본격 오디오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시도하는 초보 오디오 애호가를 위한 단품 플레이어로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초보 애호가일수록 브랜드



의 인지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시스템 피델리티는 거의 무명이나 다름없는 신생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지 4월호에 기고한 SA-250에 대한 시청 리포트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시스템 피델리티라는 회사를 간단히 소개해야 할 것 같다. 시스템 피델리티는 2004년 코펜하겐에서 유럽 지역에 AV · 하이파일을 배급하는 5개 회사와 덴마크의 투자자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종합 오디오 회사로서, 현재 SF-3000 · 4000 · 5000 시리즈(스피커), 시스템 250 · 270 · 300 · 370 시리즈(CD 플레이어 · 튜너 · 앰프) 등과 같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군을 출시하면서, 보급 및 중급 오디오 시장에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회사이다.

그렇다면 CD-250은 어떤 음향을 들려주는 플레이어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CD-250은 똑배기보다 장맛이라는 속담

이 잘 어울리는 기기라는 생각이 든다. SA-250에 대한 시청 리포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보급형 기종에서 쉽게 경험하기 힘든 청명한 공간감을 이끌어 내는 심도 표현을 배경으로 하여, 강력한 폭발력보다는 섬세함과 투명함, 중후함보다는 경쾌함과 산뜻함, 정교함보다는 유연함과 생동감 등을 수렴과 발산 사이의 균형이 뛰어난 발성 속에 용해하는 플레이어가 CD-250인 것이다. 중량감이 다소 부족한 까닭에, 편성이 큰 음악의 포르테에서 고음역의 텍스처가 얇아지는 문제점이 나타나지만, 음악 표현의 중심 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중음역을 중심으로 하여 상하의 균형감이 뛰어난 대역 밸런스, 그리고 안정감 넘치는 템포, 미려한 선율선, 깔끔한 다이내믹, 밝은 색채 표현 등을 입체감이 뛰어난 음상과 생동감 넘치는 흐름이 유연한 조화를 이룬 음향을 이끌어 내는 플레이어가 CD-250이라고 할 수 있다. 글 박성수

